

## »» 'i-Grid 2005' 에서 첨단 그리드 네트워킹 기술 전 세계에 선보여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iGrid 2005”에 참가해, TByte급 (1TByte=1024Gbps)의 천문 우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한국현지에서 대회장으로 전송하고, 우리 연구원 강당에서 촬영한 HDTV급 고화질 영상을 압축과정 없이 대회장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등의 최첨단 그리드 네트워킹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은 우리나라가 핵심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10Gbps급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인 글로리아드(GLORIAD)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우리의 첨단 그리드 네트워킹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기술 선진국들 앞에서 직접 증명하는 의미 있는 시연이었다.

## »» 아돌포 까라피 주한 칠레대사 방문



지난 9월 26일, 아돌포 까라피(Adolfo Carafi) 칠레 대사가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아돌포 대사는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설명 듣고 슈퍼컴퓨팅센터, 첨단과학기술연구망 등 주요 과학기술인프라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우리 연구원이 구축하고 있는 정보유통과 초고속네트워크 등 과학기술인프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대사는 조영화 원장과 과학기술인프라에 관한 한·칠레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참석차 한국에 오는 리카르도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 »» 조영화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10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을 제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에 위촉되면 중요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소임을 맡게 된다. 조영화 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다방면에 걸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참여정부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2005년 대한민국과학축전, KISTI 부스 대성황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12일부터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열린 “2005 대한민국과학축전”에 참가해 우리 연구원을 홍보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한국인의 표준 인체골격모델’ 데이터를 첨단 평균화 기법을 사용해 ‘한국인의 평균얼굴’로 제작 전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조선일보와 KBS를 비롯한 20여개 언론사가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Korea@Home,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KISTI의 과학향기 등 다양한 사업이 소개되었으며,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와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만여 명의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연구원의 부스를 관람 했다.

## »» 제2차 아태지역 그리드 워크숍 개최



우리 연구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2차 아태지역 그리드 워크숍(AP Grid Workshop)”이 지난 9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AP Grid Workshop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고성능네트워킹으로 연결해 그리드 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APEC TEL APGrid”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25개국의 최고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은 한국의 첨단 그리드 기술을 소개하고, 아태지역의 그리드 기술 보급과 확산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 »»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 개통



지난 8월 1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6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10Gbps급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환경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인 글로리아드(GLORIAD)가 개통됐다. 이로써 국내 연구자들은 고에너지물리, 핵융합에너지, 천체우주, 대기기상, 생명과학 등 글로리아드와 연동된 거대 국제협업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R&D의 속도와 수준도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은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연구망(KREONET)에 접속해 글로리아드를 활용할 수 있다.

## »» 노사간 상생을 위한 2005년 노사합동 연수



노사간 단합을 통해 연구원을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지난 9월 2일부터 삼일 간 노사합동 “노사관계 발전 공동 세미나”가 금강산에서 개최됐다. 2001년 KORDIC와 KINTI의 통합으로 출범한 우리 연구원은 이후 두 기관 노동조합을 성공적으로 통합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노사간 상생의 원칙 하에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노사 대표 각 15명씩 30명이 참석했으며, 임금피크제, 직원 복지후생 강화, 과기노조 10대요구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발전적인 방안들을 다수 도출했다.

## »» KISTI 해외홍보 활발해져



우리 연구원의 해외홍보가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6 일에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APAC '05” 전시회에 참가하여 슈퍼컴퓨팅 및 그리드 컴퓨팅 연구 사업, Korea@Home 사업의 연구 성과를 전시해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지의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전 세계 e-Science 관련자들이 모여 협력방안을 찾는 “UK e-Science All Hands Meeting”에 참가해 우리 연구원의 e-Science 현황을 소개했다. 또, 오는 11월 12일부터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SC2005 KISTI Supercomputing Center” 전시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 »» 연구원 자녀 초청 과학체험 행사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직원 자녀 중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꿈과 희망을 심자”라는 주제로 과학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과학자가 되려면?’이라는 재미있는 과학강연을 듣고, 첨단 연구장비인 슈퍼컴퓨터, 과학기술연구망, 몰입형가상현실시스템 등을 견학한 자녀들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첨단 전자통신 장비와 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 위성 2호기 등을 관람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으며, 아빠 엄마가 수행하는 연구를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 'BIT 연구기관 협의회' 초대회장에 조영화 원장 선임



지난 9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BIOINFO 2005”에서 결의된 “한국 BIT 연구기관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이 선임됐다. BIT 관련 7개 연구기관과 한국생물정보학회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앞으로 각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중복 업무 조정, 기술·인력·DB 교환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기관이 생산한 BIT 관련 첨단기술과 연구 인프라는 산·학·연에 이전 돼 줄기세포, 신약개발, 맞춤형, 생명농업 등 BIT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응용연구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2005 KREONET & SnT-SEC Joint Workshop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3일 간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KREONET & SnT-SEC Joint Workshop”을 개최했다. ‘KREONET 기반의 첨단 응용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과 과학기술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보안 침해사고 대응기술, 최신 웹 보안기술, 네트워크 관리 및 국내외 첨단 연구망 엔지니어링 기술 등 초고속연구망과 정보보호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하였으며, 세계적인 정보통신 및 보안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정보도 제공했다.

## »» 2005년 신입직원 교육 연수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2005년 상반기 신입소원 공개 채용을 실시해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18명의 석·박사급 재원들을 채용했으며, 7월 26일부터 3일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남한강 연수원에서 신입소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를 통해 신입소원들은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파악하고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의 기초를 다졌다. 